건자재 수급 심상찮다

철근, 在庫 줄고 수입도 달부… 봄 성수기 파동 우려

주요 기초 자재의 하나인 철근이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절기에 예년 같지 않은 활발한 수요가 유발됨에 따라 수요·공급 업계 모두가 봄철의 원활한 수급을 우려하고 있다.

예년에는 겨울철이 공사 비수기로 자리잡아 수요 감소세가 확연하게 드러났고 철근을 생산하는 전기로 제강업체들은 대대적인 보수를 겸한 감산에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었다. 또 겨우내 팔리지 않고 쌓인 30만톤 정도의 재고는 공사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으로 이해돼 왔다.

동절기 철근 수요, 성수기 수준

그런데 최근의 철근 수급 사정은 이와는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성수기와 다를 바 없는 월 90만톤 이상의 수요가 계속돼 최근의 제강사 보유 재고가 9만톤대 안팎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겨울철의 재고 부족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실수요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건설업계 안팎의 지적이다. 건설 현장의 겨울철 풍경이 정체 현상을 보이지 않고 여전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겨울철 기온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난화됨에 따라 공사 진행 여건이 호전돼 있는 데다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개되며 기초 공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성능 감수제 등 고급 혼화제의 적절한 사용에 힘입은 콘크리트 제조 기술의 발달과 철근 가공의 기계화, 온풍기 보급 확대 등의 기술적인 성숙은 추운 날씨에 철근 콘크리트 공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재고 부족… 구득난 우려

최근 1 2년 사이에 두드러지고 있는 건설 현장의 변화상은 기초 자재의 수급 시장에 영향을 미쳐 겨울에도 철근을 구하지 못해 동분서주하는 건설업체들이 속출하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 실수요가 활발하다보니 제강사의 보유 재고는 물론 비수기에 철근을 구매해 성수기에 건설 현장으로 방출하는 유통업체의 재고도 충분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분한 재고가 쌓여 있지 않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올 봄에는 일시적으로 공사 현장의 적기 철근 구득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양산해내고 있다. 민간과 공공 분야의 기초 공사가 한꺼번에 시작되는 시기가 되면 수급이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에 소재한 건설 현장이나 연간 구매 물량이 적어 철근 구매를 전적으로 유통업체에 기대고 있는 건설업체의 구득난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수요자의 구매 가격을 운반 거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 놓은 제강사들의 판매 방침은 수요 급증 기간에 철근 생산 공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격오지 건설 현장의 구득난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대형 건설업체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상당폭 늘어나면서 철근 구매 계획 물량도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중소 건설업체의 체감 구득난은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대 건설업체만을 보더라도 최고 70 %까지 분양 계획 물량이 늘어나 있으며 한 부동산 정보업체 조사 결과로는 300대 건설업체의 아파트 분양 계획 물량이 지난해보다 50 %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제강사들이 대형 건설업체에 우선적으로 철근 공급에 나서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올해 늘어난 대형 건설사의 철근 구매 물량은 중소 건설사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건설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형 건설업체의 구매량 증가 못지 않게 수요 증가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공공 부문의 수요 물량이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조기 발주 방침에 따라 2월 중순 이후 관수용 철근 구매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몰아닥친 태풍 루사의 피해 복구를 서두르기 위한 구매 물량까지 가세하며 관수용 철근 구매 규모가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달청은 정부가 태풍 피해 복구 사업의 조기 완료를 독려하고 있음을 주지시키며 지난 달 제강업계에 별도의 관리를 요청함과 동시에 일반 관수용 철근보다 빨리 납품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부분 태풍 피해 복구 공사에 대한 발주와 입찰 등을 지난 달까지 완료했으며 장마 이전까지 이들 공사를 조속히 완공하기 위해 조만간 일제히 착공에 들어가 기초 자재 수요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제강업계의 보유 재고가 충분치 않은 상태인데다 민간 부문은 물론 공공 부문까지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철근 구득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도별 1월 말 철근 재고 추이

국제 고철값 급등, 수입도 여의치 않아

더욱이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경우 수급 조절 역할을 하는 철근 수입 물량도 지난해와 다르지 않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여 건설업계를 답답하게 하고 있다. 수입·유통 업체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철근 수요 업계가 활기를 띠고 있고 동북아에서는 중국의 수요 증가세가 워낙 강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물량이 크게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 국가인 일본의 내수 가격도 강세를 보여 수입이 여의치 않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국제 고철 가격의 가파른 오름세는 든든한 수요 기반을 배경으로 두 번째 가격 인상설을 유포시키며 수급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마저 지적되고 있다. 제강업계는 지난 1월 초 톤당 2만 5,000원의 가격 인상을 단행할 때 수입 고철 가격의 가파른 인상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해 가을 고철 수입 가격이 톤당 130달러에서 150달러를 막 돌파할 무렵 철근 가격을 인상한 제강업계는 최근 170달러를 훌쩍 넘어선 고철 가격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는 3월 들어 또다시 가격 인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과거의 사례에서 보듯 가격 인상을 앞두고 일부에서 사재기에 들어가거나 제강사들이 제품 출하를 기피할 소지가 커 구득난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 고철값 강세는 세계적인 철강 수요 업계의 활기와 함께 러시아 연방의 고철 수출 봉쇄 정책, 일본 고로 철강사의 고철 사용 확대 등의 요인으로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제강업계는 보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 고철 수출업자들이 수입 고철의 과반 이상을 미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전기로 제강업체의 여건과 중국 철강업계의 고철 수입 물량 급증 등의 상황을 이용, 가격을 크게 높이고 있어 중국과 우리나라의 수요가 꺾이지 않는 한 당분간 고철값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고철값 강세는 중간 제품인 빌릿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수입 가격이 톤당 260달러선을 위협하며 압연 전문 철강업체의 경영 상태를 옥죄고 있어 압연 비용과 운반비 등을 포함할 경우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수요 증가와 수입 물량의 정체, 가격 인상설 등의 영향으로 올 봄의 철근 수급 시장은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전기로 제강업체들의 전체 압연 생산 능력이 연간 1,100여 만 톤을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건설시장이 활기를 띠다보니 공급할 수 있는 물량보다 수요가 커져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지난해의 경우 철근 내수는 국내 제강업체가 공급한 1,080만 톤과 수입산 32만 톤 등 1,112만 톤에 달했다. 또 제강사가 보유했던 연초와 연말의 재고 차이를 감안할 경우 15만 여 톤 이상을 더해 총 내수는 1,130만톤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시장 규모 확대를 의식, 대형 제강사는 물론 중소형 제강사들이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설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당초 폐쇄하려던 노후 공장 설비 가동을 연장시키고 있으며 소형 압연 전문 업체들이 대거 등장, 생산 능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고철값과 빌릿 가격이 안정될 경우 철근시장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이를 기대하기 힘들어 올 봄 철근 수급시장이 건설업계의 뜨거운 관심의 대상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CJ

소민호
일간건설 기자